

담양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덕행복나눔터' 준공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행복나눔터·쉼터 조성 "문화·복지 향상·공동체 활성화 계기 되길"

담양군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덕면 '대덕행복나눔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하여 이개호 국회의원,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 최용호 군의원, 최현동 군의원, 최형식 전 군수 및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

업 완료를 축하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해 마을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이

후 올해까지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행복나눔터, 대덕쉼터 등을 조성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동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대덕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덕행복나눔터가 앞으로 대덕면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내년에도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유지

가계 부담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3년에도 화순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화순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

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화순사랑상품권의 판매가격을 2023년에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군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특별할인 판매를 이어 나간다고 설명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지역 28개 업무대행 금융기관에서 구매, 환전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과 충전도 가능해 2019년 발행 후 해마다 사용금액이 늘고 있다. 군은 특별할인과 함께 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모바일상품

권 발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올해와 같은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에도 가계 부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문화유산 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 선정 국보 7점·보물 20점 등

구례군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문화유산 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문화재청은 매년 기초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정성·정량으로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구례군을 비롯한 5개 시·군(전남 해남군, 충남 아산시, 경남 통영시, 경기도 남양주시)이 정성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구례군은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한 점과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적극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노력 등이 크게 평가되었다.

구례군은 국보 7점, 보물 20점 등을 보유한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올해 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활용 등에 1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또한 비지정 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에 주목하여 2022년에 '전은사 일주문'의 보물 지정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점(화엄사 백암국일도대선사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점(호남여성농악-포장걸림-)이 지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문화유산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구례군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개방,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유산이 온전히 전승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죽곡 행복프로젝트, 주민총회로 실현...주민투표

곡성군이 지난 21일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강빛마을 교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사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다.

죽곡면 주민자치회는 면 실정에 필요한 4개의 의제를 상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8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주민사전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총회에 상정된 의제는 △죽곡면 공동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대왕강 정화 및 생태공원 조성 △원거리 지역주민 이동권 확보 △죽곡 강보고 장보고 출렁다리 마켓 운영이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은 군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여 내년 주민자치회 자체 계획 사업으로 추진한다.

죽곡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꽃이자 주민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장이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영산강 시대 활짝'...나주시, 3600억 규모 통합하천사업 선정

치수·이수 기능 확보, 수질환경 개선, 친수·여가 공간까지



유채꽃 만개한 나주 영산강 둔치 정경. (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민선8기 시정 핵심 비전인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나주시는 22일 환경부가 공모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1800억, 도비 540억원을 확보, 총 3600억원 규모의 '영산강 나주 통합하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수·환경·수질·친수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던 하천 사업을 통합해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홍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여가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본선 심사에 오른 46곳의 지자체

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쳐 나주 영산강을 포함해 총 22곳(국가하천18곳·지방하천4곳)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나주대교~영산교, 공산 다야를 일원 영산강 약 6km구간(총 면적 3.8km²·114만9500평)의 치수·이수·수질환경·친수 확보를 위한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032년까지 10년 간 총 사업비 360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호안정비', '저류지 개량', '하천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강변 스포츠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윤병태 나주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영산강 국가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원도심과 영산포, 혁신도시를 잇는 생태하천 벨트 구축을 목표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민선8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낙점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전남도 1순위 사업으로 본선 심사에 진출한 나주시는 지난 7일 세종보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본선 심사에서 마한 문화와 영산강을 테마로 한 1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은 이날 환경부 발표를 통해 최종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나주=송준표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